3 -MAY 2 6
Copy ____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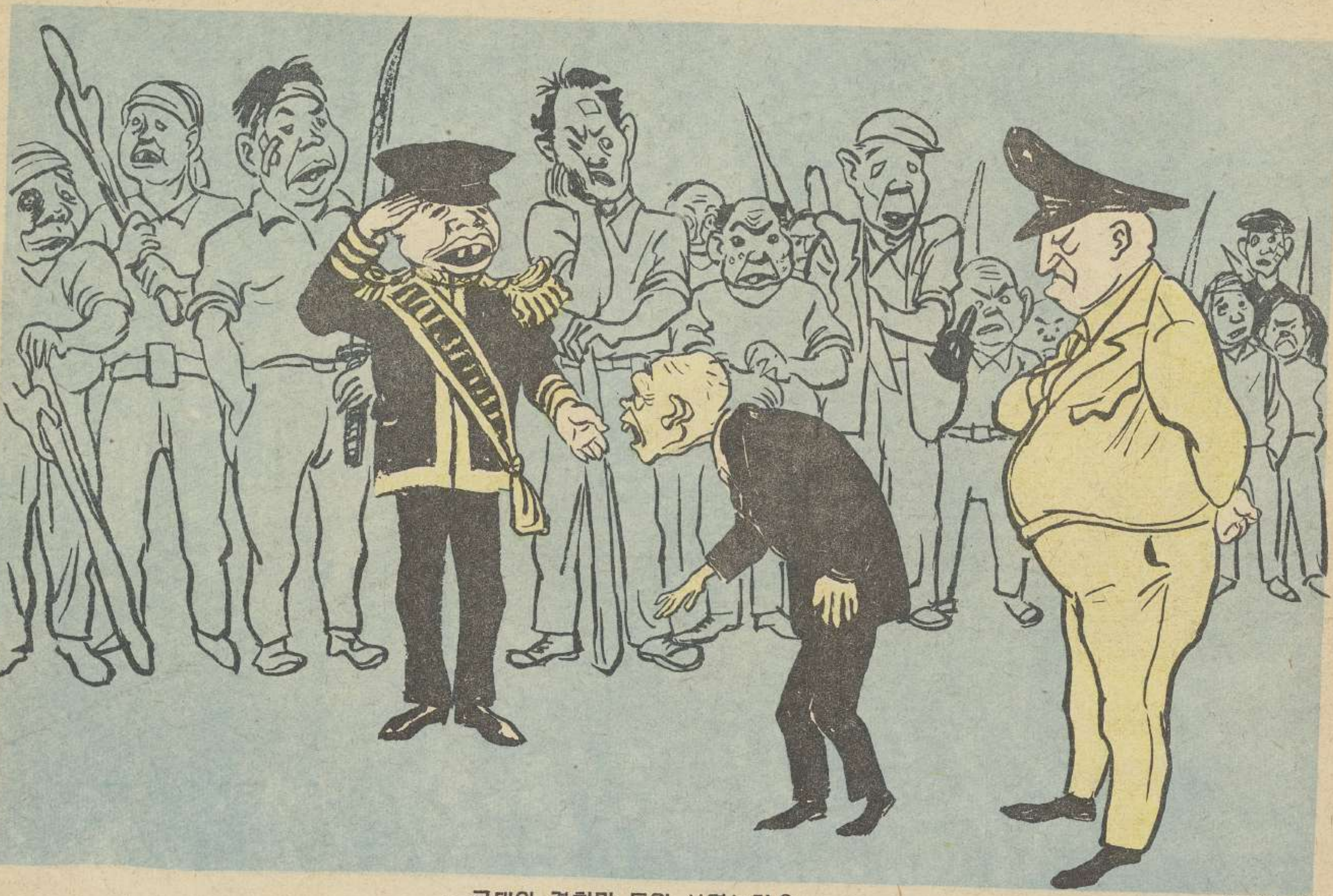
근로자들의 전투적 단결의 날 5.1절을 높은 로력적 성과로!

백 인균 그림

활살

5월호 1957년 (78)

《5.1절 비상 경계》에 테로도 한몫



—군대와 경찰만 동원 시켰는가?
—사람 잘 치는 쌈패들도 다 모아 놓았습니다
우선 한잔 먹여야지요.

박 승히 그림

뱀의 혀끝

곽 상기

콩밭에 소 풀어 놓고도 할 말은 있다는 속담도 있다. 미제 살인귀들은 자기들의 침략 야욕을 채우며 학살 행위를 정당화하며 략탈 행동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못하는 말이 없으며 빙자하지 못하는 핑게꺼리가 없다.

사람을 쏘아 죽이고는 꿩으로 잘못 보았다고 뇌까리며 사람이 들어있는 집에 불을 질러 온 식구를 몰살해 놓고도 실화라고 하면 그만인 줄로 알며, 파주에선 미군 헌병 80 여명이 용주동 3백 여호를 칩습하여 재물을 략탈했을 뿐 아니라 70 여명을 랍치하고는 《정당 방위》라고 한다.

사람이 꿩과는 어느 모로 보나 비슷지도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파주에서의 미군 헌병 중대의 만행이 어느 모로 보나 《정당 방위》와는 비슷지도 않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있겠는가?!

부녀자를 릉욕하려다가 항거한다고 총으로 쏘아 죽이고는 반항했기 때문이다 하고, 산에 나무하러 간 농민을 빈사 지경에 이르도록 곡괭이로 때리고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낫을 가리키며 《무기를 휴대》했기 때문이라고 뻔뻔스럽게도 뇌까리고 있다.

농민들이 낫을 휴대하는 것까지 구타의 구실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미제가 떠버리기 즐기는 《자유》란 대체 어떤 《자유》인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놈들의 론법에 의한다면 낫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론법대로 한다면 무기로 사용할 수 없는·그 무엇이 세상에 있겠는가?

미제 침략 군대가 평양을 일시적으로 강점했을 때, 우리 동네에 살던 한 청년은 양키 강도 놈을 머리로 받아 넘긴 일이 있었다. 채 어둡기도 전인 어쓸한 골목 안에서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그의 주머니를 털려고 하던 미군 놈을 그 청년은 뛰어 오르며 코등을 받아 넘기고서는 자빠진 놈의 대가리를 구두'발로 밟아 주었다는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 준 일이 있다.

미군을 위협한 일이 없는 평화적인 농기구를 《무기》라고 할진데, 이 청년의 이마와 신발이야 말로 확실히 《무기》라고 일커를 수 있을 것이다.

놈들의 론법에 의한다면 조선 사람이 이마를 가지고 있으며 신발을 신고 다닌다는 사실도 농민이 낫으로 나무를 한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무기 휴대》이며 구타의 구실로 될 수 있을 것이다.

× ×

미제는 《자유》에 대해서 떠버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자기들이 강점한 곳에서는 인민들로부터 초보적인 자유조차 박탈하고 심지어 농민들이 낫을 쓰는 자유조차 위협해 놓으면서 자기들을 《자유를 위한 투사》로 묘사한대도 미군 자신들도 이를 믿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세계의 이목을 속이기 위해서는 《자유》에 대해서 떠버리지만 침략적인 군대를 길러내는 데는 인간 멸시——특히 피부빛이 다른 민족들에 대한 멸시로 교양해 낸다. 피부빛이 다른 사람들은 《렬등한 인종》이기 때문에 《문명한 인종》인 자기들이 그들에게 어떤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사상으로 무장 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식인종들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있다.

× ×

생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끝이 두 갈래로 갈라졌으며 끊임 없이 날름 거리군 하는 뱀의 혀는 미각이나 촉각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끝이 둘로 갈라진 혀끝을 쉴새 없이 날름거림으로써 뱀은 자기가 노리는 대상의 주의를 현혹케 만들어 놓고는 갑자기 달려들어 통채로 삼킨다는 것이다.

미제가 한편으로는 자유에 대해 떠버리면서 한편으로 인간 멸시의 인종론을 설교하고, 사람을 꿩과 《혼돈》하며 집단적 조직적 강도행위를 《정 당 방위》로 선포하고 낫을 흉기로 주장하는 등 리성을 가진 자라면 참아 입밖에 낼 수 없어 보이는 모순에 찬 수작을 자꾸만 되풀이 하는 꼴은 끝이 둘로 나뉜 뱀의 혀를 련상 시킨다. 물론 놈들의 종국적인 목적은 통채로 삼키자는 수작이다.

책값

신 흥 순

저녁 해가 고삐 한 기장이나 남았을 무렵 구장은 오금에서 피파 소리가 나도록 온 동리를 바삐 돌아쳤다.

《계십니까?》

《누구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집회가 있습니다. 일직암치 저녁 잡수시고 공회당으로 나오십쇼》

《이번엔 또 무슨 회인가요?》

《오늘은 특히 군수 령감께서 나오시기 때매 한 사람도 빠져선 안됩니다》

《군수가요?》

《네 이번에 량식이 떨어진 농가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구호미라도 좀 타게 되나요?》

《글쎄 모릅죠 미국서 밀가루라도 가저 왔는지 하여간 무슨 좋은 일이 있는 모양어니까 령감님 꼭 참석하십쇼》

《예》

《그전처럼 잘들 안나올까바 반장을 시키지 않고 내가 직접 일르는거니까 안나오면 좋지 않습니다.》

그는 못 박은 데다 덧 꺽쇠를 치는 심정으로 재삼 재삼 강조하였다.

이번엔 유달리 군수가 나온다는 바람에 한편 궁금도 하고 한편 의아도 해서 다른 때 보다는 한결 많이 모였다.

그중에 박서방이란 사람은 구호미나 줄가 하고 자루까지 들고 왔다.

《푸르릉 프르릉……》아니나 다를가 문 밖에서 화물 자동차 멎는 소리가 나드니 군수와 수행한 사람이 들어와 주레석에 앉는다.

《식량바리인줄 알았드니 빈 차로구나!》 박서방은 혼자 융얼댔다.

수행원은 자기가 가지고 온 책 묶음을 끄르더니 매 개인에게 한 권씩 노놔준다. 구장은 출석부에다 책 받은 사람 이름 우에 기표를 한다.

《자 조용히들 하십쇼! 그럼 이제부터 군수님의 간곡하신 연설 말씀이 게시겠습니다》

구장의 소개에 이어 군수가 점잖을 빼며 연단에 나섰다.

《에헴! 에—본관은 오늘날 우리 한국 농촌이 처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군내를 순회하던 중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소감을 피력할 기회를 얻은 것은 무한한 영광으로 사료하는 바입이다. 에헴! 지금 우리 군내 농민들이 거의가 다 절량 상태에 처해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군수인 나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농업 정책이 그릇된 것이 아니라 작년도의 한해와 수해 '풍해와 랭해 등, 불가항력의 천변지재에 기인됨은 재언을 요치 않습니다. 에헴!》

장내는 수선댄다, 사실에 있어서 지금 절량된 것이 재해 때문인가? 여기 모인 농민들은 이미 《토지 수득세》요 《농지 상환곡》이요 《대여곡》《비료'대》《수세》《추곡매상》 등등으로 탈곡 마당에서 비'자루만 들고 돌아선 그들이 아닌가?

더구나 미국놈들은 자기네 잉여 곡물을 조선에 팔아 먹기 위해서 조선땅에서 농사가 안되기를 바라는 놈들이라는 것까지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재해 운운하니 될 말인가?

《왜들 이리 떠드사오!》

구장은 신경질적으로 장내를 휘 둘러본다. 군수의 연설은 다시계속된다.

《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재해를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는 방도가 오직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노놔 드린 그 책속에 있습니다. 그 책으로 말하면 옛날부터 7년 가물의 억칙같은 흉년에도 굶어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지침이 되는 구황지남(救荒指南)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 한국 농촌에는 반드시 비치해야 할 귀중한 책입니다. 이 속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은 어떤 것이며 어떠한 나무껍질에 영양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도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먹는 방법까지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칡뿌리로 녹마가루 만드는 법이라든지, 물구지 울궈 먹는 법, '둥굴레 삶아 먹는 법 심지어 소나무 껍질 즉 송기를 어떻게 먹는가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부황증에는 삼아귀 뿌리가 직효요 박사풀을 먹으면 즉사를 하고……

이 책 하나만 가지면 이번 춘궁기를 무난히 넘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유효 적절히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나의 얘기를 끝 마칩니다》

장내는 떠들석하게 웅성댄다.

《잠간 알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행원이 일어 섰다.

《다름 아니라 아까 노놔드린 그 책값은 구장께서 립체 했으니까 이삼일내로 백환씩 반장에게 내주십시오》

《뭐? 책값이요??》

모두들 격분했다. 쌀 자루를 가지고 왔던 박서방은 더 어이가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침을 탁 뱉고 나서 그 책이 들어 있는 자루를 둘러 메였다.

당연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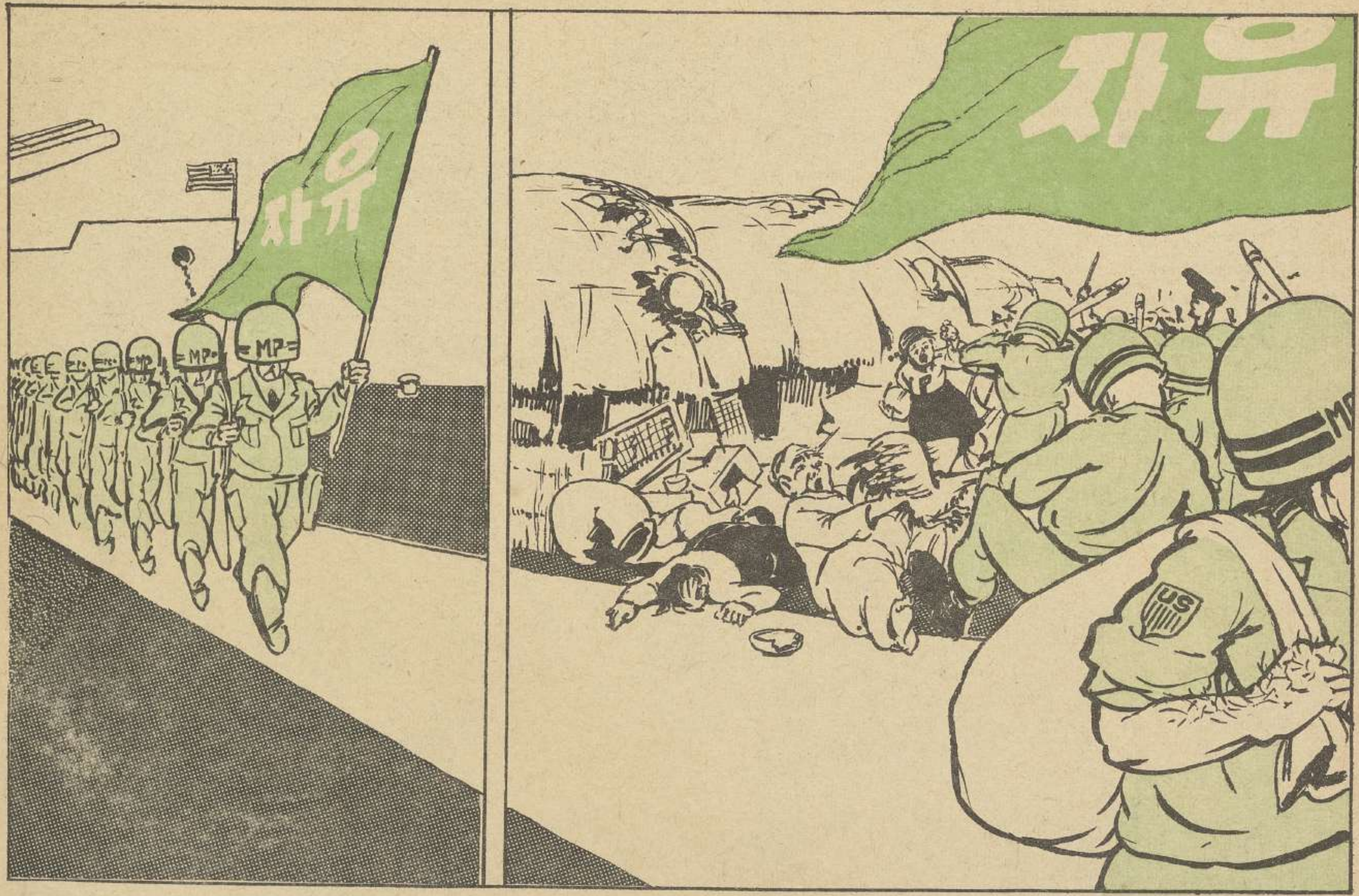
떠났다

만났다

아이쿠…

리 영춘 그림

규률 있는 강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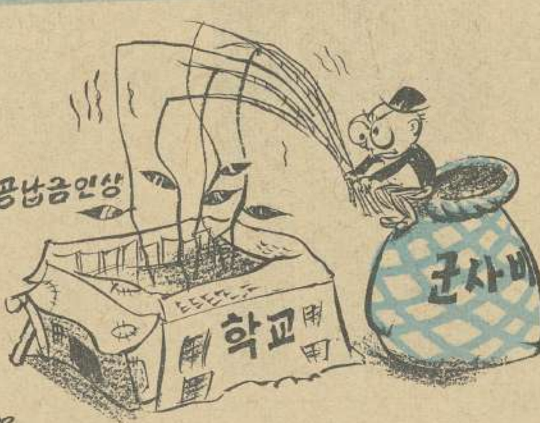
홍 종호 그림

1. 《경영 합리화》 구호 밑에 로동 시간 연장
2. 임금 지불 무제한 연기는 일상사
3. 임금 전표 저당 잡고 고리 대금에 한 몫

4. 먹든 굶든 쌀 배급은 안주고
5. 로동자들의 반항이 두려워 군 관리제 실시
6. 로동 재해와 질병 대책은 해고로
7. 앉아 죽느니 서서 싸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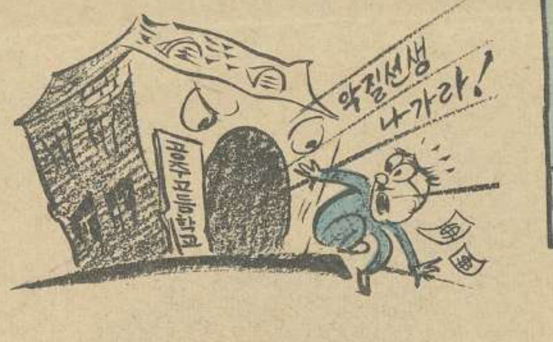
림광수 그림

궁여 지책



미국식 교육의 정체

동맹 휴학



미국식 "론리"

농토를 짓밟으며

군사 훈련을 반대했다고

사람을 죽여 놓고

정당 방위라고

백인균 그림

승냥이는 제 어미를 닮았다

안 태 선

남조선에 발을 들여 놓던 그 첫날부터 양키들은 아니한 범죄가 없었고 삼가는 만행이 없었다.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구타 사기 횡령 횡포 거만 인간멸시 등등……

지난 4월 16일에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용주동에서 미군이 감행한 일대 만행은 양키들이 남조선에서 지금껏 감행해 오던 악행들 중에서도 침략자의 본성을 가장 로골적으로 들어 내 놓은 만행으로서 전체 조선 인민의 격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월가의 략탈자들이 날 닮아라 날닮아라 하면서 길러낸 미군 헌병 게레스는 양담배를 사 준다고 꾀여서 가난하고 나어린 윤 복룡 소년으로부터돈을 사기 횡령해 먹고는 약속한 담배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돌려달라고 윤 소년이 정당한 요구를 한다고 키가 구척만한 놈이 나어린 소년을 마구 구타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 너절하고 비렬한 놈의 행동에 대해 격분을 금할길 없는데, 너절하고 포악한 놈은 게레스 개인만이 아니였고 양키들의 포악무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게레스의 보고를 듣자 그의 상관인 스미스 중대장은 헌병 일개 중대 80명을 지휘하여 용주동을 불의 습격했다. 그리하여 300여호의 평화적인 주민의 주택에 불법 침입하여 탐나는 물건들은 깡그리 략탈하고 게다가 또 70여명을 랍치해 가지고 돌아갔다.

이 사실로 보아, 게레스 개인만이 비렬하고 파렴치하고 포악할 뿐 아니라 스미스 중대장과 그 중대는 한 층 더 악랄한 도적놈들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8군 당국은 파주에서의 이 만행을 가리켜 《정당 방위》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스미스 중대와 게레스의 행동이 미 제8군 사령관의 마음에 드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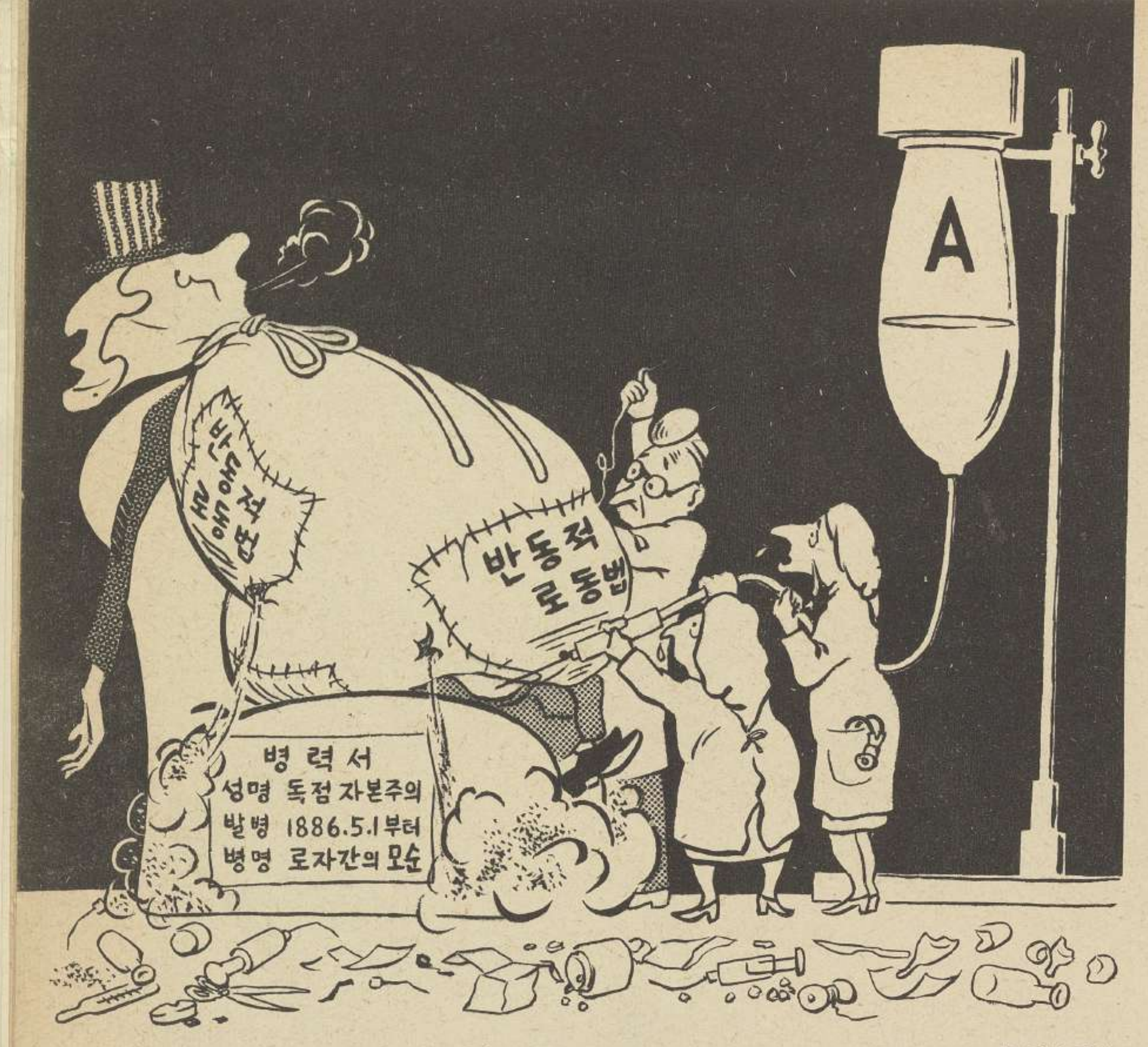
남조선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조선 인민에 대한 미군의 만행—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구타 사기 횡령 등등은 미 제8군 당국의 이 성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남조선에서 매일 같이 되풀이 되는 양키들의 온갖 죄악들은 그자들을 길러냈으며 그자들을 조선으로 보냈으며 그자들을 지휘하고 있는 자들이 추구하는 침략목적과 그 본성에서 울어나오는 행동들인 것이다.

미제 침략군이 공화국 북반부를 림시적으로 강점했을 때 놈들이 감행한 가지가지 범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무고한 인민들을—젖먹이 어린애에서부터 80 넘은 늙은이들까지 사양치 않고 대량 살육한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이 미제 침략군의 본성이다. 승냥이의 본성인 것이다.

이러한 20세기의 두발가진 짐승들 가장 탐욕스럽고 잔인무도하고 비렬하고 파렴치한 짐승들이 한시라도 더 우리 조국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은 한결 같이 웨치고 있다. 미제는 우리 조국 강토에서 물러 가라고.



병실에서 본 미제

송 용남 그림

적절한 답장

유 항 림

케프타운 시의 보석팡산 회사 사무원인 쫀•브라운은 문안 편지가 웬일인지 자주 온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전부터도 서신 왕래를 해 오던 사람한테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지껏 생사조차 서로 모르고 지내던 먼 친척들이며 옛날 친구며 심지어 소학 동창까지가 어떻게 주소를 알아서 편지를 쓰는 건지 어쨌든 뜻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서까지 문안을 받았다. 그래서 영국 본토에서는 지금 남 아프리카 련방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 편지를 쓰는 《국민 운동》이라도 일어나지나 않았는가 하고 쫀은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에게로만 편지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해 또한 서부 독일로부터 오는 편지들을 많이 받게 되였다. 쫀은 영국인이지만 그의 안해는 독일인이였던 것이다.

처음엔 문안으로 끝을 맺군 하던 편지들이 차츰 그 목적을 들어내기 시작했다. 혹자는 케프타운 시내나 시외에서 집을 살 수가 있겠는가 또 집 값이 어느 정도인가 하고 물었고, 혹자는 그 곳에서 세'방을 얻을 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허어 이거 웬 일일까! 구라파에서는 지금 우리 케프타운에서 별장 살이라도 하는 것이 류행인 모양이군!

쫀은 중얼거리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친지는 거기서 취직 자리를 하나 구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는가

이런 편지들을 받아오던 가운데 드디어 브라운 부처의 의문을 풀어주는 한장의 편지가 배달되였다. 서부 독일 프랑크프르트에 거주하고 있는 쫀의 처남의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이상에서 간단히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독일 련방 공화국은 지금 원자 기지로 되고 있으며 또 주민들의 가슴들을 서늘케 하면서 원자 전쟁 훈련을 강행하고 있소. 그러니 전쟁이란 호상 공격하며 호상 공격 받기 마련인 만큼 그리고 또 로씨아인들이 가장 강력한 수소탄과 유도 무기를 가지고 있는 오늘에, 우리 원정자들의 위험스러운 기도들이 그냥 계속된다면 여기는 원자 전쟁의 목표물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국토가 그리 넓지 않은 우리 나라 경내에는 생명이 자취를 감추게 될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위험성이 파히 긴박해지기 전에 미리 손을 쓰는 것이 현명한 듯 싶어 케프타운에 집을 한 간 얻어 두자는 것이니…》

친척과 친지들이 갑자기 아프리카 남쪽 끝에 있는 케프타운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리유를 브라운 부처는 그제서야 명백히 알 수 있었고 영국 본토나 서부 독일 등지에서 원자 기지화에 대해서 모두 얼마나 불안감에 휩쌓여 있는가를 능히 짐작할수가 있었다.

브라운 부처는 며칠을 두고 생각하고 서로 의논한 끝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 답장을 썼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당신이 념려하고 있는 그런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당지 케프타운으로 이사한대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는 비록 아프리카의 남쪽 끝이고 구라파로부터 수천 키로 떨어진 곳이지만 원자 전쟁의 재난을 피하기에 충분한 거리는 못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원자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 도발자들이 숨을만한 곳은 지구상에는 없다고 이미 로씨아인들이 경고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상의 어느한 구속에서 원자 전쟁의 화를 모면할 수 있는 피난처를 구해 보려고 헛된 노력을 하시지 마시고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인류에 끼칠 원자 전쟁을 도발하려는 자들의 온갖 기도를 막는 데 모든 힘을 아끼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며 또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뉴―욕에서 발간되는 《워―커》 지에 게재된 14세 난 소녀의 아래의 시에 대하여 저명한 쏘련 시인 에쓰. 미할꼬브는 시로 대답하였다.

미국 소녀의 시

폭 탄

태양은 휘황하고 대지는 따사로워
달은 투명하게 빛나 암흑을 꿰뚫는데
맑게 개인 잔잔한 어느날
불연듯 그 무엇인가 붉은 것이
검은 줄기 흰 줄기 뒤엉켜서 번쩍였으니
순간 태양도 달도 사람도 동물도
나무도 꽃들도 고양이도 전혀 없어졌어라.
이것이 바로 폭탄이였어라
폭탄, 폭탄, 원자 수소 폭탄.
어째서? 어떻게? 누구의 짓인가?
위정자는 부자에게 부자는 회사 지배인에게
지배인은 기사장에게 기사장은 로동자들에게 말했다.
폭탄을 만들라!
위정자들과 부자들은 정객들에게
정객들은 로동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을 옹호할 수도 있으며
당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폭탄을 만들라고.
그때엔 모두가 없어지리라
세상도 사람도 식물도 동물도 고양이도—

미국 소녀에게 주는 말

에쓰. 미할꼬브

어느 날인가 그 폭탄이 떨어지리라고—
소녀는 원자탄 수소탄을 두려워한다.
제멋대로 파괴하고
제멋대로 짓부시고
온갖 좋은 것은 싹 쓸어버릴 것이니……
세상에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 많으냐!
가령 이것들이 폭탄이라 하자!……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있나니……
이는 아동들이다. 아동들! 아동들!
아동들은 온세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
만일 화목하게 살려고 원하기만 한다면
견고하게 손들을 잡아라
검은 폭탄 실은 비행기는
결코 아무데로도 날지 못할 것이라!

쏘련 "문학 신문" 에서
(한 통신 번역)

남의 감투를 빌려다 쓰고서

버무다 섬에서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영국은 미국에게서 유도탄을 받게 되였으나 이는 그의 자살 행위로 될 뿐이다.

—좀 무시무시 하지만, 대영 제국의 왕관보다 위신이 있어 보이는 걸

박 승히 그림

단결된 우리의 힘 앞에서

모였다! 가자!

틀렸다! 가자!

조 명식 그림

—내 신발 다 버려 놨구나!

최 영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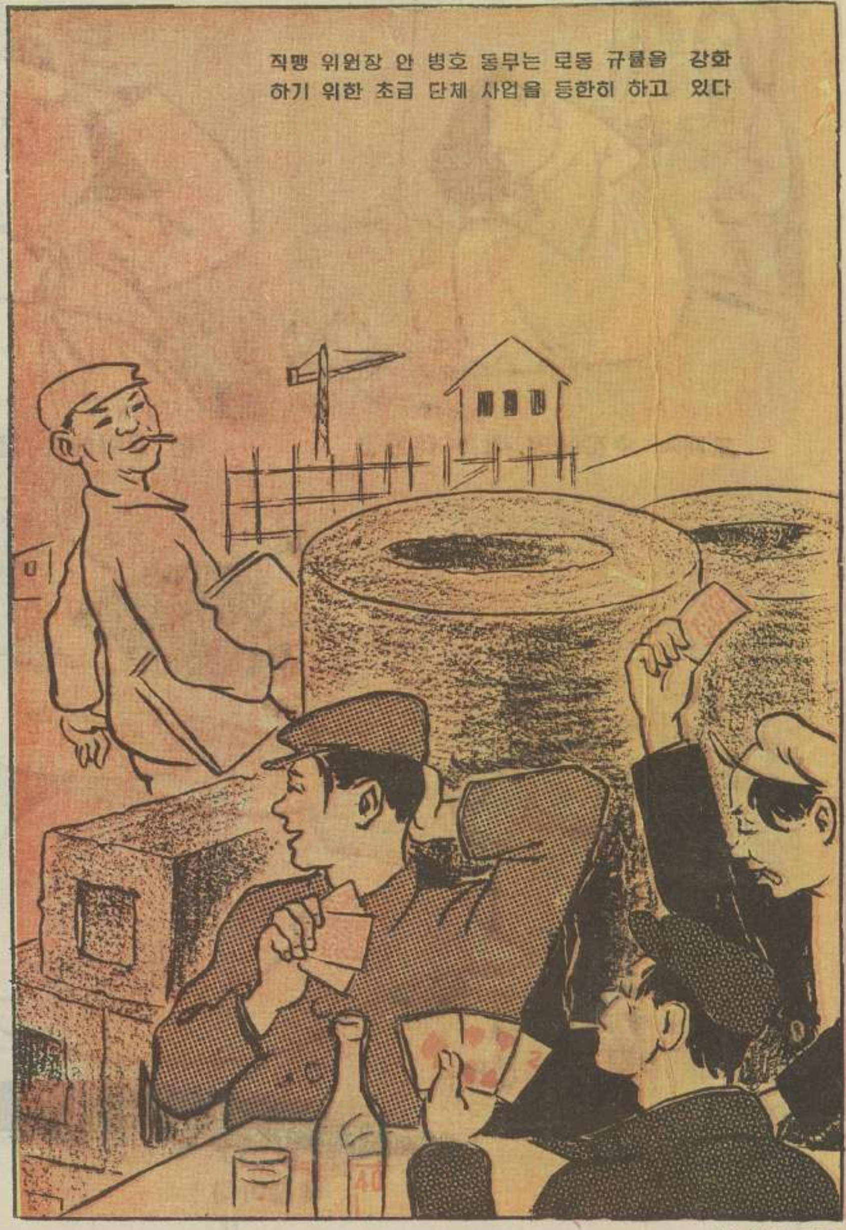
일부 건설 부문 일 군들은 국가 자재를
자기 물건같이 사랑하지 않고 있다

돌격장가신다

돌격 명령 내리십오. 20일 입니다.

박 승히 그림

직맹 위원장 안 병호 동무는 로동 규률을 강화
하기 위한 초급 단체 사업을 등한히 하고 있다



—직맹 위원장 동무, 오십시오.
—오늘은 안돼! 맹비를 받아야 되니까!

최 영근 그림

콩발에 소 풀어놓고 하는 말이

—골치가 아파 결근하고

—밥이 늦어서 지각했지.

—기왕지사 승인을 얻은 김에

—흥겨운 김에 기대를 좀 잊었을 뿐인데.

—실적은 그렇지만 내 결의만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데 웨 이리 비판이 심한가?

송 용남 그림

탈은 탈인데

고자재 수집에는 배가 아프고

반 회의에는 골치가 아프고

배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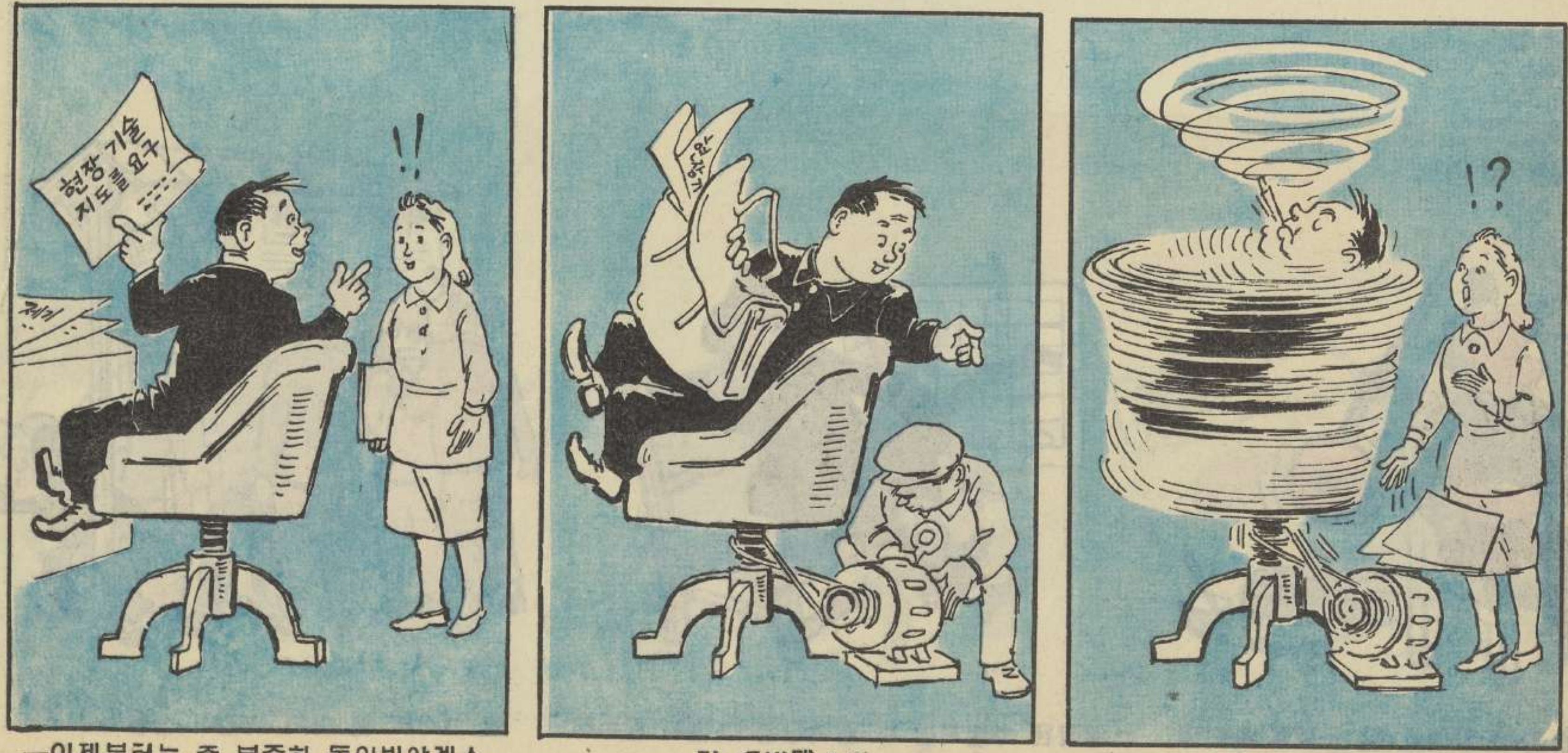
조 명식 그림

방역 상식

원 광수 그림

우리 기사장은 돌았다

리 영춘 그림



—이제부터는 좀 분주히 돌아봐야겠소.

— 다 준비됐소?

—돌 수록 아무 것도 안 보이는군.

우리 작업반장 김 맨다

홍 종호 그림

—발 김매기에 저만큼 기셀 올렸으면 우승기도 타 왔으련만…

록음실

지시는 냈으니까

성흥 광산에서도 덕천 탄광에서도 지배인 동지는 증산 계획 실행에 대한 지시문들과 로동 보호에 대한 안전 규정들을 지시문으로서 여러차례 각 해당 부서에 냈다.

그후 지배인도 기사장도 자주 현장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현장을 돌아볼 때마다 아직 지시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건만 그것은 지시를 했으니까 불원간 지시대로 실행될테지—하고 생각하군 했다.

성흥 광산 지배인 동지는 인차에 달린 제동기가 없는 것을 100%로 알면서도 그것은 지시를 냈으니까—오래지 않아 할것이라고…

덕천 탄광 지배인 동지도 신갱도 공사에 든든한 목재로서 기술 규정대로 자주 동발을 세우도록 지시를 냈으니까—틀림 없을게 라고…

그런데 성흥 광산 인차의 제동기는 여전이 없었고 덕천 탄광의 동발은 규정대로 세워지지 않았건만 지배인 동지들도 기사장 동지들도 현장에서 보고 알면서도 본체 만체 알고도 모르는체— 그것은 지시를 냈으니까—자재도 기술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되여 있으니까—불원간 될터이지—만약에 사고가 난다 치더라도 그것은 지시를 집행 안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뒤'꼬리 선봉

내각 지시 제9호에는 《지스트마균과의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밝히여 있다. 이 지시에는 함북과 량강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게와 가재를 잡아 먹는 것을 금지하며 잡아서 태워야 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지역에서 게를 잡아서 먹고 팔고 하는 관계로 여러 형태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스트마 환자들이 그 부근에 없지도 않은데 강남군 진광리 진상 협동 조합 김 승정 위원장은 조합내 로력을 동원해가지고 여러차례 게잡이를 조직해서 노나먹거나 부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팔기까지 했다.

폐 지스트마에 걸려서 피를 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병신이 되여도 그것은 게를 먹거나 냉수를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토질이니까 하는 수 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락후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내각에서는 지스트마균을 박멸할 데 대한 강한 대책을 세우게 되였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 동지는 이 지시를 집행하는 선두에 선 것이 아니라 락후한 사람들의 선두에 서 계시다.

위원장의 고집 때문에

숙천군 용덕리 풍덕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돼지 수가 급작히 늘어갔다. 그래서 위원장 동지는 회의에서 돈사를 확장하고 여물 가마도 다시 걸자는 문제를 제의했다 회의에서 지지를 받자 일체 필요한 분공을 하고 곧 작업에 착수하게 되였다. (12페지에로 계속)

심해에 전파된 소식들

최 영근 그림

—깊은 바다 속에서 사는 우리들도
고기 값을 하게 되였군

하부에 접근했건만

사전에 지도 방향을 가지고 나가서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조합원들과의 담화를 통해서

실정을 심중히 연구한 후에

결정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왔는데

사업은 여전히 락후하니 웬 일인지…

홍 종호 그림

문서주의를 시정하라니까

홍 종호 그림

일부 지도 일'군들은 하부 기관의 사무를 덜어 준다고 하면서 축소하게 된 통계를 전화로 요구함으로 하부에 더욱 복잡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11페지에서 계속)

조합이 조직된지도 벌써 여러 해 되니 그만 일쯤은 식은 죽 먹기다.

일은 계획대로 순조로히 진행되는데—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위원장—여보게 쓸데없는 고집을랑 그만 두게……

리 동무—위원장 동무 화재 방지에 관한 규정에는 여물가마는 축사에서 반드시 1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또 규정이야? 3m쯤 떨어져 있어도 돼,글쎄 바가지로 퍼 줘도 될걸 지게로 져 날라야 할게 뭐 있나 말야……공연한 로력 랑비지—

리 동무—그래도 이것은 우리 농촌에서는 꼭 지켜야 할 규정인데요……

위원장—그 규정을 꼭 지키자는 의견도 반대는 없소마는—그것이 다 불조심하라는 규정이 아니요. 그러니 우리 일을 좀 쉽게 하고 단단히 불조심을 하면 동무의 의견이나 내 의견이 어디 다를게 있소……

이렇게 하여 여물가마는 3m 떨어진 곳에 지어졌다.

얼마후에 일이지만 여물'간에서 일어난 불이 돈사에 당겨서 소동이 일어났다. 다행히 돼지들은 울타리를 넘어 뛰여나와 모두 무사했지만 돈사가 타버린 오늘에 와서는 위원장 동지께서도 규정을 지키는 것이 불조심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지?

어느 것을 먼저 할지

황북 사리원 식료품 공장에서도 12월 전원회의 결정을 연구하고 공장 실정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토의했다.

그런데 실은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지만, 그 문제들을 꺼내 놓으면 구구한 이야기가 많을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자면 시일도 걸릴 것이니……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살짝 덮어 놓고 우선 목전 생산 과제를 달성하는데만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여러가지 문제들이 무엇이냐고 구태여 물으신다면—

12톤 드리 된장 숙성 땅크 10개중 3개는 1956년 9월부터 밑바닥으로부터 우에까지 금이 나고 갈라져 있었고,

원염을 정제하는 정제 장치도 없었으며 실내 보온 설비도 되여 있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동무들은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부터 착수하자는 의견들도 있었건만—이 바쁜 통에 어느 하가에 수리를 하며 어느 하가에 정제 장치, 보온 장치를 하고 있으랴—시기 상조라고 두었다 다음에 보기로 결정한 이곳 지배인 동무 용감하게 5개년 계획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

깨여진 땅크에다 소금은 원염 가마니채 내려 부어서 어서 어서 계획을 초과 해야지—

갈라진 땅크에서는 숙성기간인 35일 간을 지나는 사이에 제일 영양가가 많은 알뺑이 국물은 매일 수십 수백 킷트르씩 땅으로 흘러 버렸고 정제 못한 원염에는 모래가 자금자금 게다가 실내 온도는 바깥날 하는대로 올랐다 내렸다—그러는 통에 계획도 못했거니와 그보다도 위생 검사원은 29통의 된장에다 불결하고 자금자금하고 썩었다고 불합격품 딱지를 붙여 놓았으니 랑비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러구 보니 할 일의 순서가 잠간 바뀌였을 뿐인데—

그들은 쉬운 것을 택했다

《녀성들이 못하는 일이 있나요! 우리 공장의 3분의 1은 녀성 로동자인데요》 사리원 식료품 공장 직맹 위원장은 자랑 삼아 말한다. 그런데 녀성 로동자들은 어떤 작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위원장 동무를 따라 현장으로 갔다.

제과, 제유, 콩두레 제조, 된장 숙성, 분쇄, 하조 운반 등에 눈에 띄이는 많은 녀성 로동자들이 씩씩하게 일하고 있다.

—참 장합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100kg 짜리도 눈뗘 진답니다. 하고 위원장 동무는 칭찬이 자자하다.

—예? 100kg들요?

—우리 공장 녀동무들은 콩 한 가마니 소금 한 가마니쯤은 꺼떡도 안하고 져나르는데요!

—소금 한 가마니라니요?

—한 60kg 잘 되지요.

—?……………

직맹 위원장 동무는 신이 나서 자랑을 했지만 그것이 녀성들에 대한 로동 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모양—그래서 그 규정에 대해서 말했더니—예 그래서 밀차를 사오기도 했는데 오히려 불편하다고 쓰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한다 누구나 힘 들이지 않고 일하기를 바랄 것은 뻔한 일 —그런데도 밀차를 사용하지 않고 등'짐으로 운반하는 건 밀차의 구조와 작업 장소의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때문인 것도 또한 뻔한 일 그러나 이런 애로 조건들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로동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편이 쉽다고 생각하는 모양.

물에 대하여

요즘 평양 시내에서는 얼마간 색다른 《경쟁 현상》을 볼 수 있다.

동구역 자동차 수리 사업소에서는 수도 관리소와 련락도 없이 불완전한 자재 시설로 계속 방수하고 있는지가 벌써 2개월—그리하여 매일 4~5톤의 물을 랑비하고

국립극장에서는 위생 시설의 설비 불완전으로 매일 3~4톤의 물을 흘려버리고 건설성 4트레스트 1사업소에서 맡은 국립 예술학교 건설장에서는 불완전한 시설로 매일 4톤의 물을 랑비,그런가 하면 공동 수도들 중에도 이 《경쟁》에 참가한 것이 적지 않다. 공동수도를 하루 종일 방수해 둔다면 매일 약 15톤을 흘려 버리게 된다.

이런 《경쟁자》들은 말하기를 그러기에 옛날부터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쓰는 것과 버리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임을 모르는 모양——물을 쓴 뒤에도 수도 꼭지를 꼭 막지 않고 그냥 방수하는 건 참을수 없는 랑비다. 비록 대동강이 가까히 있다고는 하지만 물은 막대한 설비와 막대한 로력을 들여서야 얻은 인민의 재부이니까…

우선 동구역 강안동이나 북구역 문수동, 중구역 서성동에서는 물'줄기가 약하거나 자주 나오지 않는 것은 물을 쓸데 없이 흘러내려 보내는 어러한 사람들의《덕》을 보는 셈이다.

김 상 애

막혔다

리 형석

거다리던 봄'비가 밤새껏 내리더니—평양시 서구역 고노동에 새로 지은 3층 아빠트는 현관문이 막히고 말았다. 현관엔 홍수가 나서 층계를 세 계단은 이미 넘었고 네번째 계단에서 남실거리고 있었다. 한 계단만 넘으면 마루방으로 부엌으로 다음엔 온돌'방으로 넘어들 기세다.

이 3층 아빠트는 산비탈 밑에 서 있다. 그런데 산비탈로 내려오는 비'물이 흘러내려 가던 낮은 곬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물'길이 막혀서 여기 고인 것이다. 하수도가 있으면야 이런 때아닌 수재를 겪을 리 없겠건만 하수도가 없었다.

아빠트의 주민들은 도랑을 치기로 결정하고 현관과는 반대 방향으로 난 창을 뛰어 넘어 비가 쏟아지는 바깥으로 나섰다. 아빠트 모서리와 산비탈 사이에 있는 좁다란 공지에 도랑을 파고 물을 그리로 뽑아내기 위해서다. 그러나 예기하지 못했던 사정이 비를 무릅쓰고 하던 그들의 작업을 중단시켰다. 거기에는 곡괭이 날도 들어가지 않는 굳은 암석이 깔려 있었다.

하는 수 없이 각기 자기 방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창에서 뛰어 내릴 때는 쉬웠지만 한 길이나 되는 창까지 올라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응급 조치로 3계단짜리 사다리를 하나 만들어 창문에 걸쳐 놓았다. 이리하여 현대적인 3층 아빠트의 통로는 보장되었다.

사태가 이렇게 된 원인을 알아 보았더니, 화단은 역시 설계가 공사착수 후에야 완성된 데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하수도 공사를 뒤로 미루게 되였고, 건물 공사가 끝났을 때 건설성은 하수도 공사를 끝내줄 것을 약속하고 도시 경영성에 인계해 주었다. 그러나 인계해 주고 보니 인제는 남의 일 같이만 생각하게 되였다고—

아홉길이나 되는 산을 쌓다가 한 삼태기의 흙을 채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을 이루지 못했다는 옛말도 있다.

3층 아빠트를 건축하는 대 공사에 비해 볼 때, 비록 굳은 암반이 깔려있다고는 하지만 하수도 공사쯤은 보잘것 없는 조꼬만 일에 지나지 않는다. 한 삼태기의 흙을 나르는 수고와도 비길 수 있는 이런 조꼬만 로력을 아낌으로써 현대적인 3층 아빠트의 통로를 가끔 3계단짜리 사다리로 보장하는 현상을 언제까지나 되풀이하도록 하려는가!

틀은 차리고 볼 것이지

장 진팡 그림

—보시다 싶이 이 자리들에서 한 사람이라도 없어서는 일할 수 없지 않소…

기술 학습회는 한가한 때에나?

함흥 지구 건설 트레스트 산하의 건구공장에서는 로동자들의 증산의 열의는 높건만, 증산 실적은 이 열의와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

웬 일인가?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대패기의 모타가 타서 기계가 서 있는가 하면 한달 후에는 엽치기 기대의 모타가 또 타서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이 공장에선 특히 사고가 자즌 건 웬 일일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기술 지도원은 달려와서 야단한다. 기계를 돌리기 시작할 때는 미리 공회전을 시켜봐야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타가 탓다고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그런 것도 모르냐고 로동자들을 나무랜다.

이 공장 로동자들이 기계 조작법을 잘 모르는 경향이 계속되는 건 웬 일일까?

기계 대패니 기계 톱이니 기계 엽치기니 하는 현대적인 목공 기계를 다루어 본 로동자가 적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로동자들은 기술 학습회를 열고 중요한 기술 문제들을 배울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도일'군들은 기술 학습회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기술 학습회를 하지않는 다니 웬 일일까?

기술 학습회는 반년째 미루어만 온다. 지금은 생산에만도 바쁘니 그럴 짬이 없다는것이다. 적당한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다.

그러면 생산에만도 짬이 없어서 쩔쩔 매게되는 건 웬 일일까?

그건 사고가 잦은 때문이고—

가만 있자 이렇게 되고 보면 개미 채'바퀴 도는 격이 되지 않겠는가?

독자투고

형님의 파철 수집

의주 병원 허 성필그림

—형님 내가 모은 파철을 어데로 가져가요?
—야 : 야. 가만 있어 지금은 파철 수집 경쟁 주간이야!

—형님, 이것들도 가져 가세요. 이건 우리들이…
—체, 별것들을… 이젠 경쟁이 끝났어!

평양시 서구역 신천동 평양 조차장역 감 상세그림

원 광수 그림

편집 위원 장 진팡, 유 항림, 김 선락, 박 기성, 정 준기
신 흥순, 백 인균, 송 용남, 리 수근

발행소 활 살 사 인쇄 1957. 5. 10 ㄱ—40470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7. 5. 15 값 (50) 원

8034 ХВАЛЬСАЛЬ

리 승만 강제 징 소집

8 ПЭК
УЛ.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

박 승히 그림